특별기획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대책' 필요하다

"종단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 많아"

㊅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현황
㊥ 유사명칭 사례와 문제점
㊇ 유사명칭 사용 방지에 대안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민과 불자들의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호에 보도한 후 추가 확인 결과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속적인 사례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여론 비등
명의도용 유사명칭 등 적극 대응 주문

지난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계종) 표장이나 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원 모양의 외곽선을 그대로 사용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무 관련 없이 무단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넣은 삼화불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삼화불교는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사례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례 이전에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 총무원은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명의도용을 막아냈다. 총무원 호법부는 "명의도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호법부에 접수되는 명의도용 건에 대해선 호법(護法)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총무원 호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단 사용한 칠곡 ○○사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대구검찰청에 고소했다. 종단에 등록을 하지 않은 칠곡 ○○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계 모 언론에 명칭을 무단 도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총무원 호법부에서 사법처리를 의뢰한 것이다. 총무원 호법부는 "○○사의 행위는 청정교단을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도용하고, 조계종의 명성에 편승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라면서 사법처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공승관 호법부 호법팀장은 "조계종 스님이 '이럴 수 있냐'는 항의전화나 진정이 와서 확인을 해 보면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명의도용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종단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호법부는 종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호법부는 앞으로도 종단 명의와 문장(紋章)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유사명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 한글자만 추가시킨 모 단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변경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종단은 지난 1962년 4월14일 '대한불교조계종'이란 명칭을 당시 문교부에 등록했다. 이후 2002년 10월7일 명칭 보존을 위해 업무표장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2004년 10월7일 등록을 마쳤다. 또한 2004년 12월20일에는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한불교조계종 문장인 삼보륜에 대한 업무표장을 완료하는 등 종단 명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조계종'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이 독점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명칭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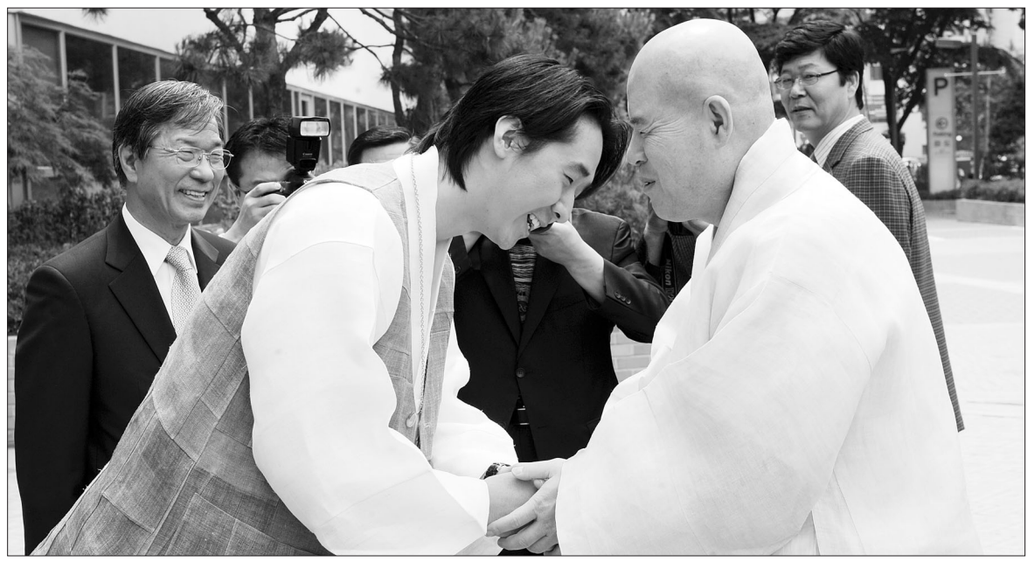
유사명칭과 명의도용의 문제는 심각하다. 독신출가승으로 구성된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은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전통사찰의 80%와 불교신도의 70%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다"면서 "그 명칭으로 활동하느냐 아니냐는 불자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성과 현실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종단과 불자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종단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대한불교조계종' 유사명칭 사례

▷ 국제선불교조계종	▷ 대한불교본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율종	▷ 중앙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조계종
▷ 대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 충남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지장조계종
▷ 대선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여래조계종	▷ 대한선불교조계종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한국불교화합조계종
▷ 대승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우리조계종	▷ 대한정토불교조계종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 대원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일붕조계종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 한국불교극락조계종	▷ 한국선불교조계종
▷ 대중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 일붕조계종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 한국호국불교조계종
▷ 대한국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정화조계종	▷ 전통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전법조계종	▷ 해동불교임제조계종
▷ 대한미타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선종	▷ 정토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통일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방문해 문형진 세계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통일교세계본부 관계자로부터 통일그룹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오찬을 함께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번 통일교 방문은 문형진 세계회장이 2차례 총무원을 예방해 전달한 초청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과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등의 예방을 받고, 11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10월경에 태릉선수촌을 직접 격려 방문하기로 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전통불교문화원 '프로그램 개발' 주목

"참선, 누구나 쉽게 입문하도록 안내"

첫 상설 '화두 참선 입문과정'
사찰김치 만들기 강좌도 개설

지난 11일 개원 1주년을 맞은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스님)이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스님은 개원 1주년을 앞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본부장 혜오스님은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년을 맞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종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면서 "첫 상설 프로그램으로 종단의 중심 수행법인 '화두 참선 입문프로그램'을 6박7일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불교문화원은 1박2일 과정으로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사찰김치 만들기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통불교문화원이 밝힌 '화두 참선 입문프로그램'은 오는 7월11일 1기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해 6박7일간 실시한다. 종교를 초월해 참선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기는 7월17일, 3기는 7월24일, 4기는 7월31일, 5기는 8월7일, 6기는 8월14일, 7기는 8월21일부터 각각 6박7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증명법사로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설정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혜국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을 모셨다. 또한 영진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수불스님(안국선원장), 월암스님(선원수좌회 학수위원장), 원철스님(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박영재 서강대 교수 등의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출가 수행자의 전유물로 알려진 참선을 누구나 쉽게 입문하도록 안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종교를 초월해 참선을 통해 행복을 찾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불교문화연구원의 '화두 참선 입문프로그램'은 선(禪) 가이드 제도를 도입해 참가자들의 선 수행을 돕게 된다.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서재영 동국대 박사, 박희승 전통문화원 총괄부장 등이 선 가이드를 맡는다.

한편 1박2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통사찰 김치 만들기'는 7월11일과 8월14일 각각 1기생과 2기생을 모집한다.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식재료비를 포함한 참가비는 25만원이며, 담근 김치는 가져갈 수 있다.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거나 가족이 참여할 경우 10% 할인해 준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전통불교문화원

지난 2009년 6월 개원한 전통불교문화원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제6교구본사 마곡사 인근 태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종단의 각종 연수교육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건물이다. 부지 넓이는 3만3000㎡(1만평)로 각종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교육행정동과 숙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박후생동으로 구성됐다. 각 동 모두 지상 3층 규모이며 숙박후생동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승가복지의 실현은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승가복지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공개토론회는 제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인 만큼 관심있는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일 정 : 2010년 6월 23일(수 음 5. 12)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진행사회 : 총무국장 종민스님
❀ 토론사회 :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토 론 자 : 법만스님(선운사주지스님), 선문스님(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종단 종정기관, 선원대표스님, 율원대표스님, 강원대표스님, 비구니회스님, 승가단체, 복지관련 전문가 등
❀ 방 청 : 승가복지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모든 대중 가능

※의견제출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박종학(02-2011-1710/ fax 02-720-3302 / pjh65@buddhism.or.kr)

불기2554(201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